

학폭위 조치에도 괴롭힘 계속... 피해 학생 어찌나

SOCIETY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광주 한 중학교서 2년째 피해...병원치료·인권위 진정 가해 학생·부모는 적반하장...학교 “완전분리 어려워”

광주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이 동급생의 반복적인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섰음에도 괴롭힘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가해자인 동급생 B양으로부터 욕설과 언어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 B양의 괴롭힘은 사소한

오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B양의 언행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A양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후 B양과 B양의 학부모가 A양 측에 사과하고 합의까지 했지만 B양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양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됐고

B양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B양에게 학교폭력 조치 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B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A양을 헐뜯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학년이 올라 반 배정이 바뀌었음에도 A양이 있는 교실을 찾아 신체 접촉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앞서 상해를 입은 사항을 포함해 경찰 신고를 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지만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결과는 기소유예였다.

이후에도 지속된 괴롭힘에 학폭위가 추가로 열렸지만 진술만 있고 CCTV 영상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 학생들 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조치가 나왔다. 문제는 가해자인 B양이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인 A양은 외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B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A양을 고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이유 없이 A양의 반을 찾아 노려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를 해왔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여서 완전 분리는 어렵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

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 역시 해당 사안을 두고 적반하장격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A양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진정까지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A양의 부모는 “피해 당사자인 아이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만 심리상담 등 받으면 뭐하나. 그 친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속 괴롭힐 텐데”라는 아이의 말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무능력한 부모처럼 느껴져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전남경찰청,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

새벽시간대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홍구 대법관은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3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추가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파

악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양형 주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성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박대성의 불복으로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 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광주시장배 미용경기대회 9일 오전 광주 동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광주시장배 미용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묶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구 파크골프장 조레안, 특혜 시비 의혹 속 부결

‘서구파크골프협회장이 현 서구의원 남편’ 지적도 조레안 부결 위해 일부 의원 동조...결국 부결 처리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서구파크골프장 관련 조레안의 부결 배경에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기 위한 서구파크골프협회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레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협회 측 요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 설명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333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조레안 심사는 시작한 지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는 오미석 서구의원이 발의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을 두고 의원들 간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의 조레안은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조례 입법예고 후 7일 서구파크골프협회에서 제출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안 의견서를 보면 협회가 서구 내 위치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독점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자 민간위탁 △파크골프협회 추천을 받아 시설관리 인력 배치 등이다. 여기에 ‘협회가 제시한 의견 반영이 어려울 경우 조례 보류 또는 철회를 통해 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조레안에 대해 의원 고유 권한인 조례 발의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협회 입맛에 맞게 고치고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해당 협회장이 서구청 퇴직 공무원이자 현직 서구의원 남편이라는 점에서 “의원의 조례를 두고 구의원 남편이 감나라 배나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협회 측 의견에 동조하며 조례 보류나 철회를 촉구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협회 의견서 내용 대부분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며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파크골프협회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 불행사단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11 | 날씨 20:05
예보 18:47 | 날씨 08:42



광주	20~31
목포	21~31
여수	22~29
순천	21~30
구례	21~31
광주	20~31
임도	22~31
흑산도	23~29
고흥	21~31
진도	21~30

목포	미물(고)	03:46 / 16:09
	쌀물(저)	08:56 / 21:14
여수	미물(고)	10:39 / 22:54
	쌀물(저)	04:19 / 16:34

불법 새우잡이·어구 사용 덜미

만년필 ○·여수해상에서 불법 어구로 무려가 어업을 한 어업인 3명이 체포. 9일 여수 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시 대여지도 남방 해상에서 연안통발·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한 뒤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줄 2틀을 세워두고 새우 약 150kg을 끌어당긴 60대 C씨도 검거. 해경은 현장에서 위반자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어구 압수, 증거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쳤으며,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 해경 관계자는 “성어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에 나서겠다”고 다짐. 여수=송원근 기자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